

■ 코로나19 감염 급확산... 도민 불안감 최고조

“점점 내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코로나 관련 글 쏟아져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수신타터 대기 장례식장 궤환자 소식에 제주시청 ‘발칵’

제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6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눈과 비가 오는 추운 날씨 속에도 이른 아침부터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수신타터까지 길게 이어졌다. 시민들은 매서운 한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의 차례가 다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에 제주보건소 주변 도로는 끊임없이 물러드는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폭증하자 직원 20명 이상을 긴급히 투입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은 쏟아지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검체를 채취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머물렀던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기간 장례식장을 다녀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16일 0시까지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만 480여명이다. 보건소 측은 16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진단 검사가 폭증하며 모든 직원들이 검사에 매달리고 있다”며 “과로가 염려돼 직원들을 교대로 검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검사량이 너무 많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모든 직원이 녹초가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항에서도 수백명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지난 15일 하루 280여명이다.

제주시청은 발칵 뒤집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민장례식장에서 해당 기간 제주시 모 공무원 가족이 장례를 치렀던 지라 시청 소속 공무원 130여명이 조문을 다녀갔다. 또 도청 소속 공무원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장례식장을 다녀간 직원은 진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연이어 발생한 지역 내 감염 사태

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 맘카페 등 도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가 진짜 급속도로네요’ ‘오늘부터 동네 마트 가는 것도 포기했다’ ‘이제 점점 주변으로 코로나19가 다가오는 것 같다’ ‘학교수업은 어떻게 하나’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신모(42·여·제주시 노형동)씨는 “지역 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며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그나마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6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도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여파 혈액수급 ‘비상’

단체헌혈 취소 속출... 전년 대비 17% 줄어

혈액재고량 6일분 그쳐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며 헌혈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단체 헌혈이 취소되기 시작해 평소 7-9일분을 유지하던 혈액 재고량이 6일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주혈액원 관계자 “지난 15일 제주 시내 모 고등학교에 이어 오늘(16일) 경찰서 1곳이 단체 헌혈을 취소했고, 22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또 다른 고등학교도 단체 헌혈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주혈액원은 연말까지 확정된 헌혈 취소 규모가 차량으로 환산하면 20여대, 참여 인원으로 따지면 600~8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며 올해 도내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의 단체 헌혈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7%가 줄었다. 대면 수업이 이어졌던 고등학교와 대학만 따지면 단체 헌혈은 23% 감소했다.

개인 헌혈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하루 제주헌혈의집

에서 헌혈을 한 시민은 40명으로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혈액원은 보유한 혈액량에 따라 단계별로 수급을 조절하는 데 5일분 미만은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제주혈액원 측은 현재 6일분의 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소 소모되는 혈액량이 적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일 뿐”이라며 “갑자기 큰 수술로 인해 다량의 혈액 수급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기면 지금 보유한 혈액은 금세 소진되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혈소판제제는 3일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지금 겨우 1일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제주혈액원은 헌혈 취소가 계속 발생하면 응급수술과 대형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며 감염을 막기 위한 발열 검사와 여행기록, 호흡기 증상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코로나 재확산에 서귀포 실내관광지 ‘취침’

올들어 관람객 60-70% ↓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서귀포지역 실내 관광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4일까지 서귀포지역 공영관광지를 찾은 관람객은 모두 23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31만여명에 비해 45.7%가 감소했다. 관람객 가운데 개별 관람객은 222만여명으로 33.4% 줄었다. 반면 단체·외국인 관람객은 11만여명에 그치며 전년에 비해 88.2%나 감소했다.

관광지별로는 ▷주상절리가 52만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55.0% ▷천제연폭포는 26만여명으로 49.3% ▷천지연폭포는 70만여명으로 45.0% ▷용방폭포는 44만여명으로 40.2% ▷정미리는 36만여명으로 23.0% 감소했다.

반면 실내 관광지인 ▷감골박물관은 3만29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71.5%가 줄었다. 서귀포지역에 위치

한 실내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A관광지도 전년에 비해 60%, B관광지는 70%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귀포지역 공영관광지 대부분은 코로나19가 진정세이던 지난 10월부터 일반단체 관람객 등이 늘면서 관람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11월 하순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서귀포지역 공영관광지의 1일 입장객은 지난 8월 8819명에서 9월 4680명으로 줄었다가 10월엔 8700명, 11월엔 932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11월 하순 8282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12월 들어선 5245명으로 급락했다.

B관광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던 10월 들어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관람객이 급감했다”며 “특히 시내권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관광지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심판 인용률 56%

25건 중 14건... 제주시 “사소한 위반행위 구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 청소년에 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25건 중 14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56%에 이른다. 나머지는 기각 2건, 취하 2건, 진행중 7건이다. 인용된 건은 1/2감경 6건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1/3 감경 6건 (객실창문 선풍,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2/3감경 2건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심판청구 26건 중 12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46%이고, 14건이 기각됐던 것에 견주면 인용비율이 10%p 높아졌다.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2/3 감경인용도 올해는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면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알몸사진 유포 협박 징역형

알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아 올해 58차례에 걸쳐 유포하겠다고 협박, 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감골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 탐라향 5년생 (화분), 궁천,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속이 울퉁한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18-2003-20-08 010-2699-2355